

碩士學位論文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康 東 彦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金 孟 姬

2002年 8月

#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康 東 彦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提出者 金 孟 姬



金孟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抄錄>

##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金 孟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指導教授 康 東 彦

모든 예술작품은 각 장르마다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보는 사람의 지각능력에 따라 발견될 수도 있고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감상자의 심리적 태도나 대상에 대한 교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미술작품을 보는 안목은 바로 미술감상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미술교육은 작품의 이해나 감상보다는 표현 활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림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미술시간 자체가 부담감을 주는 교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감상영역을 미술비평가 미술사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미적 안목을 길러주고 감상활동 분야의 비판적이고 심미적인 태도, 미적 직관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감상수업의 실태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수업에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감상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의 고찰과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미술교사 21명과 계열,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490명의 표집 대상을 선정한 후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었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시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환경은 일반계 학교보다 실업계 학교가, 읍·면지역 학교보다 시지역의 학교에서 미술실 보유 실태가 열악했으며, 그나마 미술실이 있더라도 미술수업을 위한 기자재 또한 일반교실과 큰 차이가 없어 미술수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상교육의 운영 면에서는 전 영역을 고루 진행하는 편이나 실기수업을 위한 예시작품 감상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술사영역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감상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수업시수 부족을 첫째로 꼽았는데, 부족한 시수를 보충할 수 있는 교과재량활동은 일반계 학교 대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읍·면지역, 실업계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높아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효과적인 감상수업으로는, 생활주변의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의 확대와 아울러 전시장 방문에 앞서 미술교사로부터 사전 지식을 얻고, 전시장에서 직접 작가나 안내요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효과적인 미술 감상수업을 위한 학습도구와 이론과 실기 수업이 가능한 미술실의 확보가 시급하며,

둘째, 미적 체험의 강화로 현장 감상학습을 활성화시켜야 하겠으며,

셋째, 교사의 역할로서, 끈임 없는 자기연수와 특히 감상수업을 위한 미술사나 비평, 미학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유도해야겠으며,

넷째, 수업시수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배려로 수업시수를 종전대로 부활시키거나 학교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 교과재량활동에 미술교과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미술교사로 하여금 전공하지 않은 다른 교과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나 다른 학교로 수업지원을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 목 차

## <抄錄>

I. 서론	1
II. 미술 감상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	5
1. 미술 교육의 본질	5
2. 미술 감상교육	7
가.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	7
나. 감상수업의 단계	9
다. 감상수업의 유형	10
라. 감상수업의 평가	12
3. DBAE교육과 감상교육	13
가. DBAE의 배경	13
나. DBAE의 개념	14
다. DBAE의 내용과 감상교육	15
4. 제7차 교육과정과 미술 교육	17
가.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의 변천	17
나. 제7차 교육과정과 미술 교육	20
III. 연구의 실태	24
1. 연구 대상 및 방법	24
2. 설문 결과 및 실태 분석	25
IV. 결론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1
<附錄>	

## 표 목 차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3
<표 2> 배경변이(학생) .....	3
<표 3>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i .....	18
<표 4>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ii .....	19
<표 5>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미술과 수업과정 비교 .....	21
<표 6> 6·7차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미술과 수업시수 비교 .....	21
<표 7>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 .....	22
<표 8> 6·7차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 .....	23
<표 9> 도내 고등학교 및 미술교사 현황 .....	24
<표 10>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도(학생) .....	25
<표 11> 미술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교사) .....	26
<표 12> 미술수업 흥미 저해요인(교사) .....	26
<표 13> 미술수업이 즐겁지 않은 이유(학생) .....	27
<표 14>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학생) .....	27
<표 15> 미술수업 운영 방법 .....	28
<표 16> 학생들이 좋아하는 단원 .....	28
<표 17> 교사들이 비중 있게 다루는 단원 .....	29
<표 18>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	29
<표 19> 미술교과 중점 목표 .....	29
<표 20> 감상수업의 필요성(학생) .....	30
<표 21> 감상수업의 필요성(교사) .....	31
<표 22>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	31

<표 23> 도내 고등학교 미술실 현황	31
<표 24> 미술실에 갖춰진 기자재	32
<표 25> 감상수업의 실태	32
<표 26> 감상수업의 영역	33
<표 27> 감상수업 시수 실태	33
<표 28> 감상수업 시수 부족 요인	34
<표 29> 감상기록장의 활용(교사)	34
<표 30> 감상기록장의 활용(학생)	35
<표 31> 감상수업에 대한 평가 방법	35
<표 32> 감상수업 평가에 대한 만족도	35
<표 33> 도내 고등학교의 학급 인원	37
<표 34> 미술교사가 바라는 적정 학급 인원	37
<표 35> 주당 수업시수 실태	38
<표 36> 수업시수 감소에 대한 반응(학생)	39
<표 37> 재량활동 교과	39
<표 38> 고2~고3학년에서의 희망 선택교과	40
<표 39> 미술관·전시장 수업의 도움 정도	41
<표 40> 전시장 방문 횟수	42
<표 41> 선생님 설명의 도움 정도	42
<표 42> 전시장에서 작가나 전시 안내원의 설명	42
<표 43>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감상장소	43
<표 44> 활발한 미술수업을 위한 개선점	43
<표 45> 미술교과와 관련된 연수기회의 참여도	44
<그림 1> 미술교과 교육 목표 체계표	20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2000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의 목적을 보면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sup>1)</sup>라고 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과정과 표현을 통하여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며, 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미적 체험과 감상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조건의 조화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작용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미술의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다. 미술에서 작품제작과 미술교육에서 이해교육과 창작 활동, 감상 학습 등은 미적 사고, 행위, 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sup>2)</sup>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은 그 시대의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표현과 감상’에 중점을 두어왔는데,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의 미술교육은 ‘표현’ 위주의 조형활동 학습으로 진행되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목, 자신 없는 과목으로 인식되어졌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작한 작품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감상은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교과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사를 통한 감상교육이나 그 외의 감상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sup>3)</sup>

---

1)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p.481.

2) 이창립(1996), 「미술의 기능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6집, p.235.

3) 최정현(2001), “중등학교에서의 감상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p.5~6.



현실적으로 감상교육을 위한 미술실 자체의 구비 문제, 시청각 자료의 부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활발한 감상수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종전에 한 학년에 4단위(일주일에 2시간)였던 수업이 국민공통교과 10학년에서 2단위로 되어 있고 11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미술과 생활 4단위가 있으나 만약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 시수가 종전의 1/2로 줄어들어 드는 셈이다.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회보다는 미술품이나 조형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앞으로는 감상교육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어 실질적인 감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생활 속에서 미를 즐길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는 미술 감상교육을 통하여 지도될 수 있다.”<sup>4)</sup>고 보기에,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술 감상교육의 실태를 조사, 정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과 미술교사 중 계열,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표집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문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검토, 분석하였다.

첫째, 미술수업에 대한 학생, 교사의 흥미도와 교과 목표 실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다.

둘째,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와 감상수업을 위한 교육 환경여건을 알아본다.

셋째, 감상교육의 운영실태, 활용되고 있는 자료와 교수방법을 알아본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인지도를 알아본다.

다섯째, 효율적인 감상교육을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

4) 김정희(1998), 「미술 교육 입문」 형설, p.17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배부 및 회수현황은 <표 1>과 같으며, 학생에 대한 배경 변이는 <표 2>와 같다.

배부와 회수는 직접 방문조사와 우편을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내용을 분석하여 도표화하였다.

구 분	교 사(명)			학 생(명)		
	시지역	읍·면지역	계	일반계	실업계	계
배 부	15	6	21	318	200	518
회 수	15	6	21	318	172	490
비율(%)	100	100	100	100	86.0	94.6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구 분	총계	성별 현황						지역별 현황					
		남			여			시지역			읍·면지역		
		일반	실업	계	일반	실업	계	일반	실업	계	일반	실업	계
인원수(명)	490	163	75	238	155	97	252	232	100	332	86	72	158
점유율(%)	100	33.3	15.3	48.6	31.6	19.8	51.4	47.3	20.4	67.8	17.6	14.7	32.2

<표 2> 배경 변이(학생)

### 3. 연구의 한계점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이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내의 고등학교 미술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상수업의 실태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29개교 중,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

주군)과 학교의 특성(일반계, 실업계)을 고려하여 18개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남녀학생 490명과, 고등학교 미술교사 26명(기간제 교사 포함)중 21명에 대한 설문을 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상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설문 결과, 제7차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수업시수의 감소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견해나 11~12학년에서의 예·체능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과목별 선호도, 감상수업에 대한 필요성, 전시장을 활용한 감상수업의 필요성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에서 밝혔듯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 미술교과 수업시수의 감소이다. 종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4단위(주당 2시간 수업)를 선택했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10학년(현재 고교1년)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 미술교과를 2단위(주당 1시간 수업)로 선택함에 따라 미술교과 수업시수가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어 수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미술교사들의 경우 전도적으로 미술교과 수업시수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타 학교에 수업지원을 나가게 되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Ⅱ. 미술 감상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

### 1. 미술 교육의 본질

우리 나라의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기르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미술 교육은 중학교 미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sup>5)</sup>

인간의 감성을 통하여 영혼과 정신을 조형화하는 미술교육은 이미지와 감동을 통한 감성적 인식이 수반되는 교육이므로 의식세계에서 가장 깊이 작용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이 인간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미적 이미지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감성이 깊어지고, 정서를 세련되게 하며, 인간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술교육은 보통교육, 대중교육의 성격을 띠며, 소수의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를 즐길 수 있고 대중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미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미술교육은 표현 활동보다는 감상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상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sup>6)</sup>

미술활동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활동이 있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향수하는 감상활동이 있다. 이 두 관계는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술의 표현 즉, '창조한다는 것'의 앞바퀴와 '미술의 감상'이라는 뒷바퀴가 미술의 형식(조형)이라는 자전거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sup>7)</sup>

5)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p.2.

6) 홍기태(1996), 「미술사 비교 분석을 통한 감상」, 미술교육논총 제5집, p.181.

7) 김삼량(199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6.

따라서,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발전시켜 나가는 예술이며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 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미술 교육의 목적이 있으며 미술 교육은 미적인 안목,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창작 능력, 문화 및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품을 볼 수 있고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실기수업을 강조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미술 작품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은 그 추세가 제작활동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파악과 이해를 도모하고 지식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술제작,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감상, 미학,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방법들이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미술관, 박물관과 연계한 현장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국제화·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는 세계화의 추세와 다양한 생활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의식의 변화와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정서적인 인간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주적 인격체로 성장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국제 경쟁 시대의 급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획일적인 인간보다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창의성, 미적 정서, 조형 기능, 미술에 대한 지식의 함양에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시각적 상징을 작품화하여 나타내는 ‘표현활동’이 있고, 그것을 내면세계에 받아들여 즐기는 ‘감상활동’이 있다. 이 표현과 감상활동은 모든 예술활동이 가지는 속성이기도 한데, 교육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미술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런 미적 경험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9)</sup>

8) 김혜숙 외(1998),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p.40.

9) 김춘일(2002),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p.174.

‘미적 정서’란 아름다운 대상에 반응하는 정서적 성향을 의미하며, 미술교육은 이러한 미적 정서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래 지(知), 정(情), 의(義), 기(技)가 충만하고 잘 조화된 인격의 육성이 교육의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현대 교육은 지나치게 인지적인 면에 치중되어 사고와 기억의 지(知)가 우선하고 감각이나 감수성을 위한 정(情)의 교육에 소홀하여 편협한 교육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교육의 과제는 지성과 감성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좁혀서 본래 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요, ‘생각하는’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느끼는’ 일에도 균형 있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미술감상교육

### 가. 감상교육의 필요성

모든 예술작품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보는 사람의 지각 능력에 따라 발견될 수도 있고 전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감상자의 심리적 태도나 노력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교감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며, 미술작품을 보는 안목은 바로 미술감상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sup>10)</sup>

감상(鑑賞, Application)이란 말은 창조나 제작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예술작품이나 자연 또는 다른 미적 대상에 심미적으로 반응하는 과정 전체를 일컫는다.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잘 생각하는 것, 가치, 대상의 질이나 값어치를 가늠하는 것, 바르게 평가하는 것, 온전하게 또는 예민하게 느끼는 것, 예술작품을 깊이 맛보고, 즐기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예술감상이란 미적 대상에 대한 적극적 가치 인식의 의미를 포함하며, 창작활동과 동일한 적극적인 정신과 전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불러 깨우치기’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sup>11)12)</sup>

10) 박경희(2000), “미술비평을 통한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40.

11) 조성윤(1999), “미술관을 이용한 고등학교 미술감상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3.

12) 오순균(2000), “고교 미술 감상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6.

김춘일의 미술교육론(1989)에 의하면, 미술감상이란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 미술작품의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미술감상은 작품제작과정과 미술사, 미술비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제작, 미술사, 비평 등과 모두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되어왔는데 실제로 위의 영역들은 모두 연계되어, 작품제작과정은 미술품의 제작과정과 작가의 아이디어를 알게 하며, 미술사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미술품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며, 미학과 미술비평 등은 학생들에게 미술품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좀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줌으로써 미적 능력을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다.<sup>13)</sup>

감상교육은 단순히 미술품을 보거나 미술관을 관람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요소들을 분석, 평가하고 미술의 방향을 알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어려서부터 미술품을 보고 즐기는 습관이 자라나면서 미적 감각, 미적 안목, 미적 사고를 개발하고 미적 경험을 통한 가치관이 확립 되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미술감상은 이성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작품 속에 담겨있는 주제, 구성 요소, 재료, 기법, 작가의 의도, 작품 내용 및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요소들을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즉, 미술과 생활을 연관시켜 작품을 미학적으로 감상하는 방법과 미술 비평적 측면에서 시대별 양식으로 나누어 감상하는 방법 등으로, 각 학교가 놓인 지정학적 위치나 학교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 여부에 따라 감상교육에 차이가 있겠으나, 총체적으로 감상교육은 대상을 눈으로 관찰하고 그 특성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특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처럼 감상교육은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과정으로서 정서를 순화시켜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인간은 미술감상, 음악감상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여유를 즐길 수

13) 김혜숙(1994), 「미술감상과 미술품의 활용」, 미술교육논총 제3집, pp.52~53

14) 고미숙(20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감상학습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27.

있고, 더 나아가 미술 감상을 통하여 미술품에 담겨진 사회적,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 느낌, 감정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미적 경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학교 미술교육의 목적이 미술가의 양성이 아니라면 작품을 음미할 수 있는 시·지각적 교육과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sup>15)</sup>

#### 나. 감상수업의 단계

감상수업은 그 단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작품에 반드시 대입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작품의 특성이나 수업목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하거나 질문을 더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미술작품의 보편적 감상방법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펠드만(Edmund.B.Feldman)의 ‘비평적 4단계’ 감상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sup>16)17)</sup>

##### (1) 직관 및 서술단계 - 직관적 반응

어떤 대상이나 작품을 보았을 때 첫인상이나 전체적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미적 대상을 바라보고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 (2) 분석단계 - 작품의 내재적 특성

미적 대상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바를 언어로 표현한 후에 그 대상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작품의 구성과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작품의 짜임새, 구성, 재료의 특징, 선과 색채의 특징, 미술 형식 등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 (3) 해석단계 - 작품의 의미 해석

서술과 분석을 하는 동안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작품의 의미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강하며 학생들이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즉, 작품의 구조와 미술가의 표현 의도를 간접적으로 경

---

15) 권순호(2001), “중등미술교육에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p.7.

16) Haganan, Sally(1992), "Aestheticism Elementary", Art Education Elementary NAEA, p. 105.

17) Feldman,E.B.(1988), "The Teachers as Critic", Research Reading for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 A Journey Beyond Creating Reston NAEA, pp.59~60.



힘하게 되는 단계이다.

#### (4) 판단단계 - 내면화 단계

이전 단계에서 알았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결정하는 단계로 종합적 이해가 이루어진다. 감상과정은 일반적으로 판단이나 평가로 결론을 짓는데 학생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견해로 나타나게 된다.

위와 같은 감상법은, 먼저 작품을 바라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종합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분석 감상을 하고, 분석 감상으로 얻어진 새로운 눈으로 종합감상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미술의 이해나 감상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활발하게 이끌어 내고 충분한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여 확실하게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 다. 감상 수업의 유형

감상수업의 유형에는 지도 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조건, 환경적 조건, 교사의 조건 등 제반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형을 권순호<sup>18)</sup>, 김경미<sup>19)</sup>, 현범구<sup>20)</sup>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토론법

작품의 표현 특징이나 조형요소, 미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지도 내용이나 감상의 주제에 따라 일제 감상법과 모둠별 감상법, 대담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일제 감상법은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 특징, 느낌 등을 발표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깊이 있는 감상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며, 모둠별 감상법은 모둠별로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담법은, 학생들이

---

18) 권순호(2001), 전계서, pp.11~14.

19) 김경미(1997),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15~18

20) 현범구(2000), "중등학교 미술교육에 있어 효율적인 감상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p.26~31.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쌍씩 돌아가면서 감상한 작품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형식의 감상 토론법으로, 개성적인 감상관점을 발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하나, 다인 수 학습에서는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따른다.

#### (2) 관찰법

작품의 주제, 형태, 특징, 느낌 등에 대한 반응을 보는 방법으로 분석법, 비교법, 분류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법은, 작품의 조형특성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탐구태도를 기르는데 좋으며, 비교법은 몇 작품을 놓고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고 특징을 찾아내는 관찰법이다.

분류법은 회화, 디자인 등의 여러 작품을 보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는 것으로, 작품의 일반적 특성을 발견하고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다.

#### (3) 모의 미술관법

시청각 자료나 화집, 복제품을 통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작품을 통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우수작품을 선정, 전시, 감상하는 방법으로도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빠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4) 제작법

제작법은 표현학습의 유형에 속하는 적극적 감상이다. 여러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살펴보고 묘사하거나 특징을 옮겨보는 가운데 작품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다. 작품감상에서 관찰된 화면 구성, 색상, 구조적 특징, 재료와 기법 등을 변화시키거나 인상적인 것을 강조하여 원래의 작품을 변형하여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볼 수 있다.

#### (5) 문예법

감상내용을 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비평문, 감상문, 평가표 작성하기 등의 활동이 있는데, 미술용어와 어휘 등을 개발하고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감상, 비평함으로써 지적분야의 미술학습에 도움이 된다.

## 라. 감상수업의 평가

감상수업의 평가에는 양적·질적 평가, 상대·절대 평가, 미술적·교육적 평가, 상호 평가와 자기평가가 있다.<sup>21)</sup>

### (1)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평가의 결과가 수량화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뉘는데, 양적 평가는 부분중심이고 연역적 논리에 기반을 두며 통제적 탐구방법을 활용하는 반면, 질적 평가는 전체중심이며 귀납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사실적 탐구방법을 활용한다. 자료수집 방법이나 형식에 있어서, 양적 평가가 구조화되어 있고 질적 평가는 비구조화 되어 있으며, 양적 평가가 수량적, 통계적인 반면 질적 평가는 서술적이며 비평적이다.

### (2)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

상대 평가가 학생 개개인의 위치 관계를 성적평가의 결과로 평점에 의하여 나타낸다면, 절대 평가는 개인의 평가로서 어느 만큼 노력했으며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의 학습 향상이나 정작의 평가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평가관이 보완적 관계로 정립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미술적 평가와 교육적 평가

미술적 평가란 미술가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작품이 성실하며 자유롭고 창조적이면 된다는 입장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교육적 평가는 미술과의 교육목표에 준하여 그 달성도를 보는 것으로, 학생이 표현해 가는 과정의 이해, 기능, 태도 등에 유의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 (4)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

상호 평가는 학생 상호간에 작품을 평가해 보는 방법으로 이때에는 상대방의 작품에서 결점만을 찾지 않고 올바른 감상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자기 평가는 창작 활동으로, 자기작품을 반성하고 비평하는 평가인데, 교육에 대하여 급속한 진전을 가져오며 자아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조형형식에 자기평가를 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세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작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

21) 권순호(2001), 전개서, pp.14~19.

### 3. DBAE교육과 감상교육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의 대안으로 등장한 미술교육 실천 운동으로 미학, 미술사, 미술표현, 미술비평의 네 가지 학문에 기초를 두면서 미술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구조화된 교육과정 등의 특징을 가진다.<sup>22)23)</sup>

미술교육은 이해 활동과 표현 활동, 감상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종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하기 때문에 DBAE는 미술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안목 있는 이해를 갖게 한다. 즉,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미술의 이해, 감상능력의 육성,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미적 체험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술교육을 학문으로 보고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따라서 DBAE는 맹목적 수용과 적용이 아니라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에 맞게 수용되어야 하며 장단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가. DBAE의 배경

1960년대 이전의 미술교육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술 아카데미의 전통에 의한 미술가 교육과 산업혁명으로 필요해진 디자이너의 양성을 위한 ‘미술 표현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미술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치첵(F. Cizek)의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듀이(J. Dewey) 등이 중심이 된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다.

특히, 1940년대 이후는 치첵과 로웬펠드(V. Lowenfeld) 등에 의하여 어린이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강조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나 창의성 계발을 중시하는 미술교육이 지배적 흐름이었다.<sup>24)</sup>

그런데 러시아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 이후 교육 전반에 대한 개

22) 전성수(1997), 「DBAE가 한국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6집, p.57.

23) 정영미(1999), “미술감상교육을 위한 미술관의 활용실태와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p.4.

24) 박선영(2000), “미술사 분석을 통한 감상교육”,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15.

혁의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은 미술교육계에도 밀려들었고, 그때부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아울러 비판과 대안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브루너(Bruner)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구조가 수준에 따라 개발된다면 어떠한 단계에서도 그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이러한 브루너의 주장을 받아들인 미술 교육학자 바칸(Barkan)은 미술에서도 가르쳐야 할 중요한 학문적 영역이 있음을 강조하고, 미술에서의 탐구 또는 학문적 활동의 모델로서 미술가뿐만 아니라 미술사와 미술 비평가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바로 학문 중심 미술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1965년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구조화된 학문 지향적 미술교육 접근’에 대한 장점이 토론된 후 창의적 자기표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술교육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액커(Acker), 아이스너(Eisner), 펠드만(Feldman), 스미스(Smith), 에릭슨(Erickson) 등이 있다. 이들 중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모델을 제공한 학자가 아이스너이며’,<sup>25)</sup> 이런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DBAE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리어(W. D. Greer)이다.<sup>26)</sup> 즉,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표현이 중심이던 미술 교육이 아이스너와 펠드만에 의해 점차적으로 미술의 이해와 감상이 강조되는 미술교육으로 옮겨가면서, 아동 중심(child centered) 미술에서 학문구조 중심(discipline-based) 미술로 변화하였고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1982년 설립된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의 등장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었다.<sup>27)</sup>

#### 나. DBAE의 개념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학문에 기초한 총체적 미술교육’, 혹은 ‘미술 이해에 기초한 총체적 미술교육’으로 네 가지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을 말한다. 이것은 그동안의 작품제작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미술의 통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미학(aesthetics)’과 ‘미술사(art history)’, ‘작품 제작활동(art production)’,

25) 이국현(1999), "DBAE 방법에서 미술사 비교분석을 통한 중학교 회화학습",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p.5.

26) Greer, D.(1984), "DBAE ; Approach ART as a Subject of study", Studies in Art Education, PP. 212~218.

27) 이주연(1998),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pp.230~234

‘미술비평(art criticism)’의 네 영역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미술도 다른 사회과학과 같이 미술교육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전의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표현 위주의 미술교육이었다면, DBAE 교육에서는 미술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을 전문적인 미술가나 기술자로 키우는 것이 미술교육의 목적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미술을 향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의 신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네 분야가 미술교육 속에서 함께 통합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미술이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술사를 떠올리지만 DBAE는 미술비평과 미학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미학이나 미술비평이란, 철학의 학문적 미학 이론이 아니라 미술 실기제작에 도움을 주고 근본적으로 미적 안목을 키우는 것이며, 비평 역시 실기제작에 필요한 비평적 평가활동을 말한다. 즉, 자신의 학습단계에 맞게 작품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에 따라 미술실기제작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작품 제작활동의 네 분야는 실기와 이론이라는 이분화된 체제를 탈피하여 균형잡힌 교과과정의 구조 속에 계획된 학습을 통하여 연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 다. DBAE의 내용과 감상교육

### (1) 작품제작(창조적 표현활동)

표현의 의미를 잘 그리는 전문가의 육성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매체를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을 뜻한다.<sup>28)</sup> 즉, 미술가와 미술가의 작품 및 실기제작 학습을 통해 미술가의 시각 언어를 배우고 미술가의 정신적 사고,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미술언어로 전환, 표현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미술의 주제가 되는 대상물, 아이디어, 시각적 인식에 대한 기술, 미술 재료나 기법에 대한 학습이 주이다.

28) 김두삼(1997), "DBAE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26.

(2) 미학(미적 지각 활동)

‘미술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이해하는 미적 지각 활동’으로, 미술가의 표현능력을 증대시키는 미술 일반의 원리 등 일반적이며 규칙적인 미학 원리를 배움으로써 미술작품을 관찰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키운다.

(3) 미술사(미술 문화유산의 이해)

‘미술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사’로, 미술은 문화를 형성하고 역으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사적 안목이나 인류의 기원, 근대 및 현대 문화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 속에서 미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미술사를 학습하게 한다.

(4) 미술비평(비평적 평가활동)

‘시각적인 형태에 의존하는 속성과 특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미술 비평’으로, 미술작품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분석하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움의 과정으로 미술작품이나 시각적 환경에 대해 미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치기준이나 관점에 대해 알도록 한다. 따라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능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비평적 능력을 길러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정과 선택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위의 네 분야는 각각의 독자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미술교육 안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술사 영역은 미학이나 미술비평, 작품제작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미학이나 미술비평, 작품제작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 영역은 물론, ‘미적 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데 매우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연계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술교육 방법에서는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시청각 교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미술교과 수업에 알맞은 교재개발, 수업교실 환경 조성 등이 급선무라 하겠다.

## 4. 제7차 교육과정과 미술교육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그 변천 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개화기이후 1945년까지의 ‘이식기(移植期)’로서 서양 미술교육이 일본을 거쳐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에 적용된 시기이며, 둘째는 ‘착근기(着根基)’로 6·25의 혼란을 겪은 후 군사정권이 미술교육과정을 고시·실시하던 기간인데 제1차(1955)와 제2차(1965)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는데 학교 미술교육이 제도적·체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학교 미술교육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는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1985년까지인 ‘성장기(成長期)’로서 미술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동안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3차(1973)와 제4차(1981) 교육과정이 고시·실시되었던 시기로 특히, 제4차 교육과정은 종전의 일본식 모방색채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활에 접근한 미술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내용들로 새로운 편제를 시도한 데 그 특징이 있다. 마지막 ‘심화기(深化期)’에는 제5차(1987)와 제6차(1992)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약간만 수정하고 거의 그대로인데, 6차에서 ‘생활과 미술’이라는 영역을 추가하여 미술을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표현하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자는 의도를 반영한 정도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초·중학교에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이 지금에 이르게 된다.<sup>29)</sup>

이처럼 우리 나라의 학교 미술교육은 근대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1895년 도화(圖畵)<sup>30)</sup> 및 습자(習字)<sup>31)</sup>가 정식으로 교과목으로 선택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7차까지 거쳐오면서 “교육과정상의 구성체계, 교육목표, 내용체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 ‘영역별 분류체계’인데, 미술과 교육 목표와 내용상 특징 및 지도상의 유의점, 내용체계의 변화 등을 비교해 보면 <표 3>, <표 4>, <표 8>과 같다.

29) 김춘일(1998),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pp. 67~72

30) 물체를 관찰하고 정확히 식별하여 바르게 그리는 능력과 통상적인 형체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기능 수련, 미감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운필을 익히는 것으로 한글과 한자가 섞인 문장을 자세, 운필, 필력, 속도 등을 강조하여 지도.



교육과정	목표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	지도상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품의 선택 능력 기르기</li> <li>· 조형품의 사용 능력 기르기</li> <li>· 조형품의 창조 능력 기르기</li> <li>· 자연과 조형품의 감상을 통한 미적 정서 배양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 묘사, 의장, 배치 배합, 공작, 제도, 서예</li> <li>· 이해와 기능 : 묘화, 도안, 배치 배합, 공작 제도</li> <li>· 감상 : 일용품, 향토공예품, 건축, 동서고금의 미술작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첨가가 가능하다.</li> <li>· 지도 내용의 범위와 지도 순서를 밝힌다.</li> <li>· 표현, 이해, 감상이 서로 관련되도록 지도한다.</li> </ul>
제2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생산하는 즐거움</li> <li>· 창의적 표현 능력 기르기</li> <li>· 생활을 미화·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 기르기</li> <li>· 조형품을 애호·보존하는 마음과 태도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묘화 : 사생적·추상적 표현, 관화 재료의 표현, 협동 제작</li> <li>· 조소 : 심상적·구상적 표현</li> <li>· 디자인 : 구성, 환경미화</li> <li>· 공작 : 재료의 성질과 기능, 향토 재료의 활용, 용도의 이해</li> <li>· 도법 : 도법의 이해와 기능</li> <li>· 서예 : 조형적 가치의 이해</li> <li>· 감상 : 조형품과 생활과의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한다.</li> <li>· 감상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존경심, 미술의 동향, 미술문화의 교류 등을 지도한다.</li> <li>· 타 교과와의 연계, 생활과 미술을 밀접하게 지도한다.</li> <li>· 협동제작을 통해서 정서 순화와 근로 정신을 함양토록 한다.</li> </ul>
제3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 함양을 통한 품위 있는 인격 육성하기</li> <li>· 창조적 표현 능력 기르기</li> <li>· 표현활동을 통한 개성 확립하기</li> <li>· 전통미의 재발견과 창조적 발전 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 : 동식물·풍경·인물 그리기, 관화</li> <li>· 조소 : 부조, 환조, 관찰표현</li> <li>· 구성 : 형, 재질감, 색의 기능과 생활</li> <li>· 디자인 : 학교·가정 생활, 사회·공공적 행사와 관련</li> <li>· 공예 : 일용품, 공예품</li> <li>· 서예 : 심미성, 생활에 활용</li> <li>· 감상 : 조형품과 생활과의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중심의 내용을 목표중심으로 하고,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도한다.</li> <li>· 표현 기능의 지도 사항을 강조한다.</li> <li>· 각 영역을 학년별로 세분하여 단계적으로 지도한다.</li> <li>· 학년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2학년은 '효과적', 3학년은 '주체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li> </ul>
제4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li> <li>·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형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감상 능력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 : 구성표현, 관찰표현, 관화표현</li> <li>· 조소 : 구상·관찰표현</li> <li>· 디자인 : 구성,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공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및 전통예술에 관한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한다.</li> <li>· 내용의 조직을 체계화하였다.</li> </ul>

※ 출처 : 김삼량(1998), 전제서, p.32.

<표 3>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i

교육과정	목표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	지도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 목표를 계열화하여 교과 목표에 통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예 : 서사표현, 서각표현</li> <li>· 감상 : 자연·조형품의 감상, 미적 가치 이해, 애호의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흥미·욕구·자율성·창의성 존중, 전통 미술을 강조한다.</li> <li>· 영역별 내용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평가한다.</li> </ul>
제5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의 느낌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하기</li> <li>· 미적 감정이 풍부한 인간 육성</li> <li>· 창조적 표현 능력 기르기</li> <li>· 자연·조형품의 가치 발견 및 애호하는 능력과 태도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찰표현 : 회화, 조소</li> <li>· 구상표현 : 회화, 조소</li> <li>· 디자인표현 : 형과 색, 양감표현,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일용품</li> <li>· 서예표현 : 서사·서각표현</li> <li>· 감상 : 자연·조형물의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흥미,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게 지도한다.</li> <li>· 표현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갖게 한다.</li> <li>· 표현활동 속에 감상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li> </ul>
제6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형 경험을 통하여 표현·감상 능력 기르기</li> <li>· 창조성을 계발하여 정서 함양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과 생활 : 미술의 활용</li> <li>· 보고 나타내기 : 특징 나타내기</li> <li>· 느낌과 상상 나타내기</li> <li>· 꾸미기와 만들기</li> <li>· 붓글씨로 나타내기</li> <li>· 작품감상 : 특징 찾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존중,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한다.</li> <li>· 학교, 지역사회, 계절에 맞게 지도한다.</li> <li>·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li> <li>· 표현·감상활동을 병행하여 지도한다.</li> </ul>
제7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 함양</li> <li>· 미술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li> <li>· 미술품의 가치 판단하기</li> <li>·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적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적 체험 :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li> <li>· 표현 :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li> <li>· 감상 : 미술품 감상, 미술 문화 유산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적 안목을 기름</li> <li>· ‘표현’ 및 ‘감상’영역과의 연계성 고려</li> <li>· 다양한 발상지도를 통하여 학습효과 높임</li> <li>· 주제표현,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재료와 용구는 표현활동 속에 포함할 수 있음</li> <li>·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다양한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함</li> <li>·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li> <li>·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하게 함</li> </ul>

※ 출처 : 상계서, p.32.

<표 4>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ii

## 나. 제7차 교육과정과 미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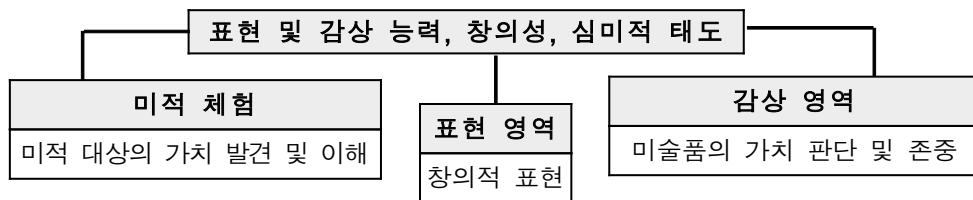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 지역 및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미술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과와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나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둘째, 동기유발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하고 아울러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는 종전에 비하여 학습자의 관심, 흥미, 요구를 반영하며 미술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을 강조하였으며, 미술과 생활을 연관시켜 감상 교육 또한 강조했다.



<그림 1> 미술과 교육목표 체계표

7차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학교 급별 미술과 수업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12학년
즐거워 생활		미 술							미술과 생활 (선택과목)	

※ 출처 : 교육부(1997), 「미술과 교육과정」(별책 13), p. 144.

<표 5>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년별 미술과 수업과정 비교

<표 5>에서 보면, 고등학교 과정의 11·12학년에서 미술과 생활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다음의 <표 6>과 같이 수업시수가 줄어들게 된다.

학교 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12학년
6차 교육 과정	즐거워 생활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34~68시간 (1~2시간)	34~68시간 (1~2시간)	68시간 (2시간)	
7차 교육 과정	즐거워 생활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68시간 (2시간)	34시간 (1시간)	34시간 (1시간)	68시간 (2시간)	34시간 (1시간)	선택과목 68시간 (2시간)	

※ 출처 : 상계서, p. 145.

※ ( )의 시간은 주당 배당시간

<표 6> 6·7차 교육과정 학년별 미술교과 수업시수 비교

국민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수로 고등학교는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표 6>을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와서는 10학년에 주당 2시간이던 것이 1시간으로 감소되었고, 11, 12학년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고등학교 미술 교육의 경우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내용	1)그리기 (1)회화 (2)조각 (3)도안 (4)색채 (5)도법 및 제도 (6)감상 (7)생활의 미화 (8)미술개론  2)공작  3)서예	*미술 I 1)회화 2)조소 3)공예 4)도법 5)서예 6)감상  *미술 II 1)회화 2)조소 3)공예 4)도법 5)서예 6)감상	1)회화 2)조소 3)디자인 4)서예 5)감상	1)회화 2)조소 3)디자인 4)서예 5)감상	1)회화 2)조소 3)디자인 4)서예 5)감상	1)회화 2)조소 3)디자인 4)서예 5)감상	1)미술과 생활 2)회화 3)조소 4)디자인 5)서예 6)감상	1)미적체험 2)표현 3)감상

※ 출처 : 고미숙(2001), 전계서, p. 16.

#### <표 7>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변화

<표 7>의 교육과정의 내용별 변화를 살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생활,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감상의 6개 영역이었던 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미술의 각 장르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설치 미술, 행위 미술, 영상 미술 등 새로운 장르의 미술이 끊임없이 대두됨으로써, 장르의 구분 자체가 중요시되지 않는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8>에서 제6·7차 교육과정만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적 체험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의 활용’과 ‘미술의 문화적 역할과 기능’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감상 영역에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하도록

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감상(비평적 감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지식 위주가 아닌 타 교과와 관련된 폭넓은 미술사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구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비 고
내용 용	1) 미술과 생활 -생활 속에서 형태의 특징을 발견하고 미적 가치 이해 -미술과 생활의 관계 이해 2) 회화 -대상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독창적으로 표현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의 느낌과 상상 등의 주제를 독창적으로 표현 3) 조소-(회화와 동일) 4) 디자인 -시각 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생활 용품 등을 주제에 맞게 구상하여 독창적으로 표현 5) 서예 -한글, 한자의 서법을 익혀서 표현 -한글, 한자의 전각의 특징을 익혀서 표현 6) 감상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 -다양한 미술 문화의 변천과 특성 이해	1) 미적 체험 -자연물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 -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 (다양한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하여 미술 문화의 특성 이해) 2) 표현 -주제 표현(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생각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표현 방법(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표현 재료와 용구(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3) 감상 -미술품 감상(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 이해 및 판단) -미술 문화 유산 이해(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영역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li> <li>· 영역별로 각 내용에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제시하고, 하부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li> </ul>

※ 출처 : 김춘일(2002), 전개서, p. 219.

<표 8> 6·7차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변화

### Ⅲ. 연구의 실태

####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29개교 중, 지역별(시지역, 읍·면지역)과 학교의 특성(일반계, 실업계)을 고려하여 18개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남녀학생 490명과, 고등학교 미술교사 27명(기간제 교사 포함)중, 21명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설문을 회수하여 자료로 삼았다. \*〈표 1〉, 〈표 2〉 참조

구 분	총 계	학교 현황						지역별 현황					
		계열			국·공립, 사립			시지역			읍·면지역		
		일반	실업	계	공립	사립	계	일반	실업	계	일반	실업	계
학교수	29	17	12	29	19	10	29	13	6	19	4	6	10
교사수 (명)	24 (3)	14 (3)	10	24 (3)	16 (1)	8 (2)	24 (3)	10 (3)	6	16 (3)	3	5	8

\*특성화고 포함, ( )의 인원은 기간제 교사수이며 순회교사와 파견교사는 제외함

<표 9> 제주도내 고등학교 및 미술교사 현황

제주도내 고등학교와 미술교사 현황을 <표 9>로 살펴보면 전체 29개교 중, 일반계 학교가 17개교(58.62%), 실업계는 12개교(41.38%)이며, 국·공립학교 19개교(65.52%), 사립학교 10개교(34.48%)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에 19개교(65.52%), 읍·면지역에 10개교(34.48%)로 시지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지역에서는 19개교 중에서 일반계 학교가 13개교(68.42%), 실업계 학교는 6개교(31.58%)이며, 읍·면지역에는 일반계 4개교(40%)와 실업계 6개교(60%)로 나타났다.

설문 통계처리는 5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문항으로 보충하여 정리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백분율로 통계처리하였다.

## 2. 설문 결과 및 실태 분석

본 설문지는 크게 5가지의 중점 요소를 가지고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미술교과 전반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흥미도와 미술교과의 목표 실현에 대한 인식도 진단에 따른 분석이다.

두 번째는 감상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며,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에 대한 분석이다.

세 번째는 감상교육의 운영 실태와 활용되고 있는 자료, 교수 방법의 분석이다.

네 번째는 제7차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도에 대한 분석이다.

다섯 번째는 효율적인 감상교육을 위한 방법을 분석하였다.

### 가. 미술교과 흥미도 및 미술수업 중점목표 분석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모든 면에서 중학교에 비하여 변화가 많다. 교과별 교실로의 이동 수업, 수준별 수업(국, 영, 수 교과),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등 새로운 용어와 학습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미술시간에 대한 흥미도(학생)

n=490

구 분 문 항	성 별				학 교 별 현 황				소 재 지 별 현 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즐거움	36	15.13	21	8.33	42	13.21	15	8.72	38	12.26	19	10.56
즐거움	84	35.30	64	25.40	102	32.08	46	26.74	91	29.35	57	31.60
보통	82	34.45	115	45.63	125	39.31	72	41.86	129	41.61	68	37.78
즐겁지 않음	19	7.98	33	13.10	32	10.05	20	11.63	34	10.97	18	10.00
관심 없음	17	7.14	19	7.54	17	5.35	19	11.05	18	5.81	18	10.00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위 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매우 즐거움, 즐거움)인 반응이 40. 71%로 부



정적(즐겁지 않음, 관심 없음)인 반응을 보인 학생(18.44%)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 50.43%가 긍정적인데 비해 여학생은 28.70%로 낮았고, 학교별로는 일반계 학생들(45.89%)이 실업계 학생들(35.46%)보다 긍정적이었고, 소재지별로는 시지역과 읍·면 지역이 거의 유사했다.

<표 11> 미술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흥미 있음	2	15.38	0	0	1	7.69	1	12.50
조금 흥미 있음	7	53.85	4	50.00	6	46.16	2	25.00
보통	3	23.08	3	37.50	5	38.46	4	50.00
별로 관심 없음	1	7.69	1	12.50	1	7.69	1	12.5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그리고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술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는 일반계 학교 교사(69.23%), 실업계 학교 교사(50.00%)의 긍정적(매우 즐거움, 즐거움) 반응이 학생들의 반응과 비례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소재지 별로는 시지역 학교 교사들의 반응이 높았다.

미술교과는 흥미도를 높이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흥미도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요인은 <표 12>, <표 13>과 같고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를 살펴본 것은 <표 14>와 같다.

<표 12> 미술수업 흥미 저해 요인(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재료준비가 복잡함	3	23.08	4	50.00	3	23.08	2	25.00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함	9	69.23	1	12.50	7	53.85	4	50.00
미술실이 없음	0	0	2	25.00	1	7.69	1	12.50
경제적 부담이 많음	0	0	1	12.50	1	7.69	0	0
기타	1	7.69	0	0	1	7.69	1	12.5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교사들의 시각에서 보면, 소재지별로는 모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흥미도가 떨어지는데 비해,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에서는 '재료준비가 복잡함'(50.00%)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함'(12.50%)보다 훨씬 높는데 비해 일반계에서

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함’(69.23%)이 ‘재료준비가 복잡함’(23.08%)이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학교별 수업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3> 미술수업이 즐겁지 않는 이유(학생) n=88

구 분 문 항	성 별				학 교 별 현 황				소 재 지 별 현 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능시험에 도움 안됨	1	2.78	3	5.77	1	2.08	3	7.50	2	3.92	2	5.41
미술실로 이동이 귀찮음	1	2.78	3	5.77	4	8.33	0	0	4	7.84	0	0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함	21	58.33	33	63.46	30	62.50	24	60.00	33	64.72	21	56.75
수업시간이 적음	1	2.78	6	11.54	5	10.42	2	5.00	5	9.80	2	5.41
준비물이 많음	12	33.33	7	13.46	8	16.67	11	27.50	7	13.72	12	32.43
합 계	36	100	52	100	48	100	40	100	51	100	37	100

<표 13>에서 보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그림 그리기에 자신이 없어서’ 미술수업에 흥미가 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준비물이 많아서’ 이다.

이에 반해서 미술시간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내용을 <표 14>로 살펴보면 미술시간이 즐거운 학생들은, 미술수업이 주로 실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내용이 쉽다거나 실기가 많아서 좋다’거나 ‘그림에 자신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실업계보다는 일반계가 읍·면지역 학생보다는 시지역 학생이 ‘기타’라는 항목

<표 14>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학생) n=205

구 분 문 항	성 별				학 교 별 현 황				소 재 지 별 현 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그리기에 자신 있음	28	23.33	18	21.18	29	20.28	17	27.42	28	21.71	18	23.68
수업 내용이 쉬움	26	21.67	17	20.00	27	18.88	16	25.81	23	17.83	20	26.32
점수를 잘 받음	7	5.83	2	2.35	6	4.20	3	4.84	2	1.55	7	9.21
실기가 많음	26	21.67	26	30.59	41	28.67	11	17.74	36	27.91	16	21.05
기타	33	27.50	22	25.88	40	27.97	15	24.19	40	31.00	15	19.74
합 계	120	100	85	100	143	100	62	100	129	100	76	100

에 많은 응답을 보여, 시지역, 일반계 학교일수록 보충수업이나 재량활동이 국, 영,

수 교과외의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 위주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응답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표 15>에서와 같이 교사들의 수업운영방법에서는, 학교별이나 소재지별로 별 차이 없이 ‘표현중심인 실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표 13>에서 확인이 되었듯이 학생들이 미술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수업운영의 방법(교사) n=21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현중심(실기)	7	53.85	5	62.50	8	61.54	4	50.00
실기 이룬 중심	6	46.15	3	37.50	5	38.46	4	50.0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표 16> 학생들이 좋아하는 단원(2개 영역) n=490

구분 문항	성 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회화	27	11.34	28	11.11	41	12.89	14	8.14	46	14.83	9	5.00
조소	22	9.24	7	2.78	21	6.60	8	4.65	14	4.52	15	8.33
디자인	96	40.34	122	48.41	127	39.94	91	52.91	136	43.87	82	45.56
공예	24	10.08	47	18.65	48	15.09	23	13.37	46	14.84	25	13.89
서예	4	1.68	10	3.97	10	3.15	4	2.33	10	3.23	4	2.22
감상	65	27.32	38	15.08	71	22.33	32	18.60	58	18.71	45	25.00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16>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단원으로, 전체적으로 ‘디자인 영역’을 1순위로, 2순위는 ‘감상영역’, 3순위로는 ‘회화영역’으로 반응을 보인 반면, <표 17>에서 보면 교사들이 연간 진행하는 수업은 ‘전 영역’을 고루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 비중이 ‘회화영역’, ‘디자인과 감상영역’ 순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사들이 비중 있게 다루는 영역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단원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비중 있게 다루는 단원(2개 영역, 교사)

n=42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회화	7	26.92	6	37.50	8	30.77	4	25.00
조소	0	0	1	6.25	0	0	1	6.25
감상	2	7.69	1	6.25	2	7.69	2	12.50
디자인	3	11.54	0	0	3	11.54	1	6.25
공예	1	3.85	1	6.25	0	0	1	6.25
전 영역	13	50.00	7	43.75	13	50.00	7	43.75
합 계	26	100	16	100	26	100	16	100

학생들이 미술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보면 <표 18>과 같이 대체로 ‘창의성과 성실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실력보다는 성실함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미술교과의 특성상 실기를 위한 ‘수업 준비성’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학생)

n=490

구분 문항	성 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창의성	78	32.77	84	33.32	109	34.28	53	30.81	110	35.48	52	28.89
성실성	86	36.13	96	38.10	138	43.40	44	25.58	131	42.26	51	28.33
준비성	36	15.13	33	13.10	29	9.12	40	23.26	26	8.39	43	23.89
작품 완성도	27	11.35	28	11.11	26	8.18	29	16.86	30	9.68	25	13.89
순수성	11	4.62	11	4.37	16	5.02	6	3.49	13	4.19	9	5.00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19> 미술교과 중점목표 (2개 선택, 교사)

n=42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적 정서 함양	9	34.62	6	37.50	8	30.77	7	43.75
전인적 인간 교육	10	38.46	5	31.25	9	34.62	6	37.50
창의성 신장	5	19.23	4	25.00	7	26.92	2	12.50
표현능력 신장	2	7.69	1	6.25	2	7.69	1	6.25
합 계	26	100	16	100	26	100	16	100

<표 19>에서 보면 교사들은 미술수업의 중점 목표를 학생들의 ‘미적 정서함양’과 ‘전인적 인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창의성 신장’에 두고

있고 수업 내용 면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며,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 나. 감상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수업환경 실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커진 ‘감상’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은 감상수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업환경을 살펴보았다.

감상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20>과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 모두 첫째는 ‘미술의 지식과 미적 안목을 높이기 위하여’로 일치된 반응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활동(실기)에 도움을 얻고자’에 반응을 보인 반면, 교사들은 ‘사회인이 되었을 때 폭넓은 교양인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하여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세 번째로는 학생들은 ‘미적 정서의 안정을 찾고자 함’인데 비해 교사들의 시각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표 20> 감상수업의 필요성(학생)

n=490

구 분 문 항	성 별				학 교 별 현 황				소 재 지 별 현 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신의 작품표현에 도움을 얻고자	75	31.51	82	32.54	99	31.13	58	33.72	92	29.68	65	36.11
미술 지식과 미적 안목을 높임	81	34.03	98	38.89	118	37.11	61	35.47	116	37.42	63	35.00
미적 정서의 안정을 찾고자	58	24.38	49	19.44	64	20.13	43	25.00	68	21.94	39	21.67
폭넓은 교양인이 되기 위하여	24	10.08	23	9.13	37	11.63	10	5.81	34	10.96	13	7.22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21> 감상수업의 필요성(교사)

n=21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신의 작품표현에 도움을 얻고자	1	7.69	0	0	0	0	1	12.50
미술 지식과 미적 안목을 높힘	10	76.92	5	62.50	10	76.92	5	62.50
미적 정서의 안정을 찾고자	0	0	1	12.50	1	7.69	0	0
폭넓은 교양인이 되기 위하여	2	15.39	2	25.00	2	15.39	2	25.0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표 22>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교사)

n=21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관심 있다	3	23.08	2	25.00	4	30.77	2	25.00
관심 있다	6	46.15	2	25.00	4	30.77	2	25.00
보통	4	30.77	4	50.00	5	38.46	4	50.0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실업계 학교 학생(50%)보다는 일반계 학교 학생(69.23%)들이, 읍·면지역 학생(50%)들보다는 시지역 학교 학생(61.54%)들이 감상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는 반응을 보여, 학생들 스스로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학습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도내 고등학교 미술실 현황(교사)

n=21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실기 이론 가능	7	53.85	2	25.00	5	38.46	4	50.00
학급교실에서 수업	5	38.46	3	37.50	7	53.85	1	12.50
다른 용도교실 사용	1	7.69	3	37.50	1	7.69	3	37.5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그리고 감상수업에 대한 필요성 못지 않게 수업환경이 중요한데 제주도내 고등학교의 미술실의 여건을 살펴보면, 일반계 학교는 13개교 중 7개교(53.85%)가 미

미술실에서 수업이 가능한 반면 실업계 학교는 8개교 중 2개교(25.0%)만이 미술실에서 수업이 가능하여 일반계보다는 실업계의 미술수업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읍·면 지역의 경우는 8개교 중 4개교(50.00%)가, 시지역에서는 13개교 중 5개교(38.46%)만이 미술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학급 학생수가 종전(40여명)보다 작은 학생수(35명)로 바뀌게 되면서 학급이 늘어나면서 교실이 부족하거나, 교과별 교실준비로 인한 결과라 보아진다.

<표 24> 미술실에 갖춰진 기자재(교사) n=28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슬라이드	1	6.25	2	16.67	0	0	3	25.00
DVD, VTR	6	37.50	1	8.33	4	25.00	3	25.00
실물화상기	0	0	1	8.33	1	6.25	0	0
컴퓨터	3	18.75	5	41.67	4	25.00	4	33.33
OHP	6	37.50	3	25.00	7	43.75	2	16.67
합 계	16	100	12	100	16	100	12	100

그리고 <표 24>에서 미술실에 갖춰진 기자재를 보면,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린 기자재보다 일반교실과 별 차이 없이 컴퓨터와 OHP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계의 8개교(37.5%)가 VTR, 실업계의 2개교(16.67%)와 읍·면지역 학교 3개교(25.00%)만이 슬라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감상수업 운영실태 및 활용 자료 분석

<표 25> 감상수업의 실태(학생) n=490

구 분 문 항	성 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항상 한다	19	7.98	15	5.95	26	8.18	8	4.65	24	7.74	10	5.56
가끔 한다	144	60.50	154	61.11	210	66.03	88	51.16	198	63.87	100	55.56
전혀하지 않는다	75	31.52	83	32.94	82	25.79	76	44.19	88	28.39	70	38.88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25>를 보면 감상수업은 전혀 하지 않는 것 보다 ‘항상 또는 가끔이라도 한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계보다 실업계가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표 26>처럼 감상영역은 시지역, 일반계 학교에서가 ‘전 영역’에서 고루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실기수업을 위한 예시작품 감상 위주’, 그 다음이 ‘미술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와 읍·면 지역의 학교에서는 ‘미술 전 영역’과 ‘실기 예시 작품 위주’로 진행된다는 반응이 같았다. 그리고 미술 감상영역 중에서 ‘미술사’는 일반계 학교에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감상수업의 영역(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실기 예시작품 감상	4	30.77	3	37.50	4	30.77	3	37.50
미술사 위주	3	23.08	1	12.50	1	7.69	1	12.50
회화 위주	0	0	1	12.50	0	0	1	12.50
전 영역	6	46.15	3	37.50	8	61.54	3	37.5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표 27> 감상수업 시수의 실태(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시간 미만	1	7.69	0	0	1	7.69	0	0
2~3시간	1	7.69	0	0	1	7.69	0	0
4~5시간	5	38.46	5	62.50	7	53.85	3	62.50
6시간 이상	6	46.16	3	37.50	4	30.77	5	37.5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 위 표의 시간은 1년 34시간 기준임

<표 27>에서의 감상시간은 일반계 학교를 제외하면 ‘4~5시간’ 정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년 수업시수(34시간)를 기준으로 했음을 감안해 보면, ‘1학기에 2시간’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계 학교에서는 ‘6시간 이상’ 진행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8> 감상수업 시수 부족 요인(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업시수 부족	8	61.54	3	37.50	6	46.15	5	62.50
감상자료 부족	3	23.08	0	0	3	23.08	0	0
감상환경 미비	2	15.38	4	50.00	3	23.08	3	37.50
기타	0	0	1	12.50	1	7.69	0	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표 28>에서처럼 감상수업 시간의 부족원인은 전체적으로 ‘미술 수업 시수의 부족’이 가장 높고, 다음이 ‘감상을 위한 교실환경 미비’와 ‘감상자료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교과의 수업 시수가 종전의 주당 2시간에서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또 전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이동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실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특별교실(미술실 포함)들을 교과별 교실에 우선 배정했거나, 미술실의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수업을 위한 기자재가 다른 교실보다 우선해서 갖춰지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 정규수업시간 부족과 시설 미비, 기타 수업 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감상수업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를 <표 29>로 살펴보았다.

<표 29> 감상기록장의 활용(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기적으로 활용	3	23.08	0	0	5	38.46	4	50.00
가끔 활용	0	0	5	62.50	7	53.85	1	12.50
필요할 때만 활용	6	46.15	1	12.50	1	7.69	3	37.50
전혀 활용 않음	4	30.77	2	25.00	0	0	0	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표 29>의 감상기록장의 활용면을 보면, 교사들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26.68%)보다는 ‘필요할 때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끔씩은 감상기록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실업계와 시지역 학교에서가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학생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63.23%의 학생들이 감상기록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는 설문을 조사한 시점이 학기초라서 중학교까지의 수업 방식으로 설문에 답했다고 볼 수 있겠으며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는 감상기록장 활용이 적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0> 감상기록장의 활용(학생) n=490

구분 문항	성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항상 받음	6	2.52	4	1.59	8	2.52	2	1.16	9	2.90	2	1.11
가끔 받음	80	33.61	92	36.51	107	33.65	65	37.79	119	38.39	52	28.89
받은 적이 없음	152	63.87	156	61.90	203	63.83	105	61.05	182	58.71	126	70.00
합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31> 감상수업 평가 방법(교사) n=21

구분 문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감상기록장의 누가기록	3	23.08	0	0	2	15.38	1	12.50
감상기록장, 발표	4	30.76	2	25.00	3	23.08	3	37.50
한번이상의 감상기록장	3	23.08	3	37.50	6	46.16	0	0
평가하지 않음	3	23.08	3	37.50	2	15.38	4	50.00
합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그리고 감상 평가에 대해서는 <표 31>에서처럼 ‘감상기록장의 누가 기록’이나 ‘수업시간에 발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계보다는 실업계가, 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학교가 많았다.

<표 32> 감상수업 평가에 대한 만족도(학생) n=490

구분 문항	성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만족함	8	3.36	4	1.59	9	2.83	3	1.74	8	2.58	4	2.22
대체로 만족함	109	45.80	89	35.31	137	43.08	61	35.47	134	43.23	64	35.56
그저 그렇다	104	43.70	146	57.94	156	49.06	94	54.65	152	49.03	98	54.44
불만족스럽다	17	7.14	13	5.16	16	5.03	14	8.14	16	5.16	14	7.78
합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감상수업의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만족’보다는 ‘그저 그렇다’의 반응이 많은데, 전시장이나 감상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서 수업 받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시간과 노력이 몇 배나 더 들어간 것에 대한 보상심리라 생각된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 한 학기에 1회 이상 전시장 방문 후 감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시장 대부분이 시지역에 치중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을 한 학기로 본다면 읍·면지역의 학교인 경우에도 제주지역의 교통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지며, 설령 시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의 전시정보를 통한 감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와 감상수업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모든 교과수업이 중학교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다. 국민공통교과 1학년에 해당되는 현 고1 학생들은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과 활동에서 교과별 교실로의 이동, 수준별 수업(국, 영, 수 교과) 등이 이루어지고,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교과의 변화는 <표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변화였는데, 특히 '표현활동'을 제외한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은 이제까지의 미술교육과정이 표현활동(실기) 중심이었던 것을 미적 안목과 지식을 넓혀 문화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감상 영역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을 교과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학급의 학생수를 종전보다 줄였고 그로 인해 학급수 증가와 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미술교과에서 보면, 종전대로의 수업 편제가 아닌 수업시수의 감소와 선택과목으로의 변환, 수업시수 감소에 따라 소속학교의 시간 부족부분을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로 수업지원을 나가거나, 소속학교에서 창의적 재량교과를 담당하거나, 전혀 전공과 관련이 없는 교과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현상이긴 하나 올해의 또 하나의 문제는, 고등학교는 2002

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7차 교육과정준비가 소홀했거나 학교 여건상 6·7차 교육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면서 수업시수가 너무 많아진 경우이다.\*<표 35> 참조

<표 33> 도내 고등학교의 학급 인원(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25명	0	0	1	12.50	0	0	1	12.50
26~30명	0	0	4	50.00	2	15.38	2	25.00
31~35명	12	92.31	3	37.50	10	76.93	5	62.50
36~40명	1	7.69	0	0	1	7.69	0	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

현재 도내 고등학교의 학급 인원수를 보면 시지역, 일반계는 '35명 이상'인데 비해 읍·면지역, 실업계는 '30명 이하'로 구분이 된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시지역 일반계 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함으로써, 고입이 끝나고 나서 정원 외 5%이내의 범위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학기말 즈음에는 40명 가까운 학생이 채워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

그러나 <표 34>에서와 같이 미술교사들이 원하는 적당한 학급 학생수는 '20~25명'으로 현실에서의 학생수와는 거리가 있는데, 이는 미술교과의 특성상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알맞게, 그리고 개성과 소질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진다.

<표 34> 미술교사가 바라는 적정 학급 인원(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25명	7	53.85	5	62.50	7	53.85	5	62.50
26~30명	5	38.46	3	37.50	5	38.46	3	37.50
31~35명	1	7.69	0	0	1	7.69	0	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표 35> 주당 수업시수 실태(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0시간 이하	0	0	1	12.50	1	7.70	0	0
10~12시간	2	15.38	2	25.00	2	15.38	2	25.00
13~15시간	3	23.08	2	25.00	4	30.76	1	12.50
16~18시간	7	53.85	3	37.50	5	38.46	5	62.50
19시간 이상	1	7.70	0	0	1	7.70	0	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현재 미술교사들이 담당하는 수업시수를 <표 35>로 살펴보면, 16~18시간이 가장 많은데 실업계에 근무하는 교사(37.50%)보다는 일반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53.85%)가, 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38.46%)보다는 읍·면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62.50%)가 수업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인은 앞의 <표 33>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반계에서는 학급수가 증가되면서 수업부담이 늘어났고, 읍·면지역의 학교는 학급수는 적으나 6·7차 교육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은 주당 시수를 13~15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수업감소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당연히 '종전대로 주당 2시간이나 2시간 이상'을 원하고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도 60%이상의 학생들이 '종전대로 주당 2시간이나 2시간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사회인이 되기 전 고등학교수업이 마지막 미술수업임을 알고, <표 20>에서 보았듯이 '미적 지식과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술수업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라야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36> 수업시수 감소에 대한 반응(학생)

n=490

구분 문항	성 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시간 이상	60	25.21	52	20.63	75	23.58	37	21.51	60	19.35	52	28.89
종전대로 2시간	70	29.41	101	40.08	124	39.00	56	32.56	126	40.65	54	30.00
1시간으로도 축합	68	28.57	58	23.02	73	22.96	44	25.58	76	24.52	41	22.78
관심 없음	40	16.81	41	16.27	46	14.46	35	20.35	48	15.48	33	18.33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37> 재량활동 교과(학생)

n=490

구분 문항	성 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국,영,수 교과 위주	113	47.48	130	51.59	227	71.38	16	8.79	182	58.71	61	33.89
미술과목도 함	29	12.19	27	10.71	30	9.43	21	11.54	35	11.29	21	11.67
잘 모름	74	31.09	77	30.56	36	11.33	125	68.68	62	20.00	73	40.55
기타	22	9.24	18	7.14	25	7.86	20	10.99	31	10.00	25	13.89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82	100	310	100	180	100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재량활동이라는 과목이 생겼는데, 진행되는 상황은 학교에 따라 매우 다르다.

우선 일반계에서는 국, 영, 수 교과 위주(71.3%)의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로 진행하고 있었고, 10% 내외의 학생만이 재량활동에서 미술교과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실업계 학생들의 68.68%가 재량교과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지역의 학교가 국, 영, 수 교과 위주(58.71%)로 많이 하고 있었고,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 40% 정도가 재량활동교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교과로 재량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은 일반계보다 실업계가,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학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이 내년에는 예·체능교과군(체육, 미술, 음악)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표 38>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남학생은 57.98%가 ‘체육교과’를, 여학생은 46.03%가 ‘미술교과’를 택하겠다고 응답하여 앞에서 살펴 본 <표 10>의 흥미도에서 여학생(28.70%)보다 남학생(50.43%)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과는 별개로 성별에 따른 교과목의 선호도를 알 수 있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시지역의 학생들은 미술교과를,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체육교과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고2~3학년에서의 희망 선택교과 n=490

구분 문항	성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술	70	29.41	116	46.03	123	38.68	63	36.63	128	41.29	58	32.22
음악	30	12.61	74	29.37	62	19.50	42	24.42	69	22.26	35	19.44
체육	138	57.98	62	24.60	133	41.82	67	38.95	113	36.45	87	48.44
합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교사들의 수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이미 <표 35>에서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살펴본 바와 같이 ‘10시간 이하’의 수업을 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19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 즉, 수업시수가 많으면 지원을 받고 수업시수가 작으면 수업지원을 나가거나, 혹은 다른 과목으로 시간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수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 21명 중 5명이 다른 학교로 미술 수업지원을 하고 있었고, 한 학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듭 밝히지만, 미술 수업시수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학급의 학교인 경우 한 학년에만 있는 미술시간이 5시간도 채 안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수업지원을 나가거나 소속학교에서 다른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교과목을 보면 단체활동(2), 재량활동(3), 교련(2), 진로지도(1), 교육학(1) 등으로 나타났다. < ( ) 속의 숫자는 설문에 응한 교사 중, 현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수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미술교사들의 입지와 전문성예의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수업지원을 나감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의 문제나 소속학교에서와 지원학교 사이에서 소속감이나 동료의식 등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다.

#### 마. 효율적인 감상수업 방안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학생들이 미술시간을 비교적 즐겁게 보내고 감상수업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술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기자재 부족, 수업시간의 절대적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교수업 외의 시설과 정보를 이용·활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9> 미술관·전시장 수업의 도움 정도(학생)

n=490

구 분 문 항	성 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도움됨	40	16.81	32	12.70	53	16.67	19	11.05	42	13.55	30	16.67
어느 정도 도움됨	182	76.47	205	81.35	240	75.47	147	85.46	247	79.68	140	77.78
전혀 도움 안됨	16	6.72	15	5.95	25	7.86	6	3.49	21	6.77	10	5.55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위의 표로 보면, 미술관이나 전시장을 이용한 수업에 대하여는 성별, 학교별, 지역별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도움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감상수업을 미술관이나 전시장을 통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40>에서 보듯, 학생들이 전시장 수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면서도 전시장을 ‘스스로 다녀오기’보다는 ‘과제 때문에 한 번 이상 다녀왔다’는 응답이 많아 어쩔 수없이 다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학생(20.63%)보다는 남학생(26.47%)이, 일반계 학생(19.18%)보다는 실업계 학생(31.40%)이, 그리고 시지역의 학생(20.96%)들보다는 읍·면지역의 학생(38.89%)들이 ‘전혀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았다.

따라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수업과 관련하여 감상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표 40> 전시회장 방문 횟수(학생)

n=490

구분 문항	성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스스로 세 번 이상	3	1.26	3	1.19	5	1.57	2	1.16	34	10.97	4	2.22
스스로 한번 이상	36	15.13	47	18.65	65	20.44	18	10.47	38	12.29	25	13.89
과제 때문에 한번 이상	136	57.14	150	59.53	187	58.81	98	56.98	203	65.48	81	45.00
전혀 다녀오지 않음	63	26.47	52	20.63	61	19.18	54	31.40	65	20.96	70	38.89
합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감상을 위하여 전시장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려주고 설명을 가끔씩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표 41>에서처럼 학생들은 전시장에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듣고 갔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42>를 보면, 전시장에서 작가나 전시장 안내자의 설명을 들을 때의 반응은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선생님 설명의 도움 정도(학생)

n=490

구분 문항	성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도움됨	17	7.14	22	8.73	29	9.12	10	5.81	23	7.42	16	8.89
어느 정도 도움됨	168	70.59	178	70.63	219	68.87	127	73.84	227	73.23	119	66.11
별로 도움 안됨	53	22.27	52	20.64	70	22.01	35	20.35	60	19.35	45	25.00
합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42> 전시장에서의 작가나 안내원의 설명(학생)

n=490

구분 문항	성별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도움됨	54	22.69	52	20.64	79	24.84	27	15.70	77	24.84	29	16.11
어느 정도 도움됨	176	73.95	194	76.98	234	73.58	136	79.07	229	73.87	141	78.33
별로 도움 안됨	8	3.36	6	2.38	5	1.57	9	5.23	4	1.29	10	5.55
합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감상수업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장소로는 전체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활용한 감상’이, 그 다음이 ‘집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마다 행해지는 교내 예술제 행사에 대하여 ‘감상수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전시장이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낮은 반응을 보여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30% 정도 나타났다.

<표 43>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감상장소(학생) n=490

구 분 문 항	성 별				학 교 별 현 황				소 재 지 별 현 황			
	남		여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술관·박물관	118	49.58	134	53.17	182	57.23	70	40.70	184	59.35	68	37.78
도서관	6	2.52	9	3.57	7	2.20	8	4.65	6	1.94	9	5.00
서점	3	1.26	6	2.38	4	1.26	5	2.91	5	1.61	4	2.22
집(신문, 잡지)	40	16.81	42	16.67	47	14.78	35	20.35	46	14.84	36	20.00
컴퓨터	71	29.83	61	24.21	78	24.53	54	31.39	69	22.26	63	35.00
합 계	238	100	252	100	318	100	172	100	310	100	180	100

<표 44> 활발한 미술수업을 위한 개선점(교사) n=42

구 분 문 항	학 교 별 현 황				소 재 지 별 현 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술시간의 부족	11	42.31	5	31.25	10	38.46	6	37.50
과다한 업무	4	15.39	2	12.50	4	15.39	1	6.25
제한된 공간	7	26.92	5	31.25	9	34.61	2	12.50
학생의 의욕부진	2	7.69	1	6.25	1	3.85	3	18.75
미술재료 부족	2	7.69	3	18.75	2	7.69	4	25.00
합 계	26	100	16	100	26	100	16	100

열악한 미술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일반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수업시간 부족’(42.31%), ‘제한된 공간’(26.92%), ‘과다한 업무’(15.39%) 순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실업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부족’(31.25%)과 ‘제한된 공간’(31.25%)이 같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미술재료 부족’(18.75%) 순으로 일반계 교사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교사들은 ‘미술시간의 부족’(38.46%), ‘제한된 공간’(34.61%), ‘과다한 업무’(15.39%) 순으로 일반계 교사들과 같은 순서로 반응을 보였는데, 제한된 공간에서는 일반계 교사들보다 오히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공간’ 즉, 미술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급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하는 불편에 따른 반응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교사들은 ‘미술시간의 부족’(37.50%), ‘미술재료 부족’(25.00%), ‘학생들의 의욕 부진’(18.75%) 순으로 반응을 보여 시지역의 교사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히 학생들의 의욕 부진의 요소는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연구·개발·적용이 절실하다 하겠다.

<표 45> 미술교과와 관련된 연수 참여도(교사)

n=21

구 분 문 항	학교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일반계		실업계		시지역		읍·면지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반드시 참여하겠다	4	30.77	6	75.00	7	53.85	3	37.50
가급적 참여하겠다	8	61.54	1	12.50	5	38.46	4	50.00
관심 없음	1	7.69	1	12.50	1	7.69	1	12.50
합 계	13	100	8	100	13	100	8	100

앞으로 미술교과와 관련된 연수 기회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반응이 일반계 학교 교사(30.77%)보다 실업계 학교 교사(75.00%)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의욕이 없는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감상수업의 실태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수업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추출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별, 계열별, 지역별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일반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의 반응이 낮았고, 소재지별로는 시지역과 읍·면지역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감상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환경 여건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계 보다는 일반계 학교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보다는 시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환경 실태를 보면, 읍·면 지역의 경우는 8개교 중 4개교(50.00%)가 그리고 시지역에서는 13개교 중 5개교(38.46%)만이 미술실이 갖춰져 있었고, 일반계 학교는 13개교 중 7개교(53.85%)가 미술실에서 수업이 가능하고 실업계 학교는 8개교 중 2개교(25.0%)만이 미술실에서의 수업이 가능하여 실업계의 미술 수업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시지역에 미술실이 부족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학급 학생수가 종전(40명 이상)보다 적어지면서(35명) 읍·면지역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시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일반계 학교에서는 교과별 교실준비로 인하여 교실부족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보아진다.

셋째, 감상교육의 운영실태는 전 영역에서 고루 실시하고 있으나, 실기수업을 위한 예시작품 감상이 많았으며 미술사는 일반계 학교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었다. 또한 감상기록장이나 직접 제작한 감상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교사가 미술교과의 전체적인 수업시수가 적어짐으로 인해 감상수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

되면서 미술교과 수업시수가 줄어든 것에 교사나 학생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계열,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숫자가 높았다. 재량교과의 운영에서는 시지역 일반계 학교에서 60%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위주로 진행되는데 비해 읍·면지역이나 실업계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공통교과 11~12학년에서 예·체능과목군의 선택과목을 묻는 설문에는, 남학생은 ‘체육 교과’를, 여학생은 ‘미술 교과’를 선호해 미술수업의 흥미도와는 별개로 성별에 따른 과목 선호도가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고 시지역의 학생들은 미술 교과를,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체육 교과를 택하겠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계열별로는 똑 같이 체육, 미술, 음악 교과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효율적인 감상교육을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주변의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활용한 현장학습을 통한 미술 감상교육의 확대와 아울러 전시장 방문에 앞서 미술교사로부터 사전 지식을 얻고, 전시장에서 직접 작가나 안내요원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행사의 하나인 예술제(미술제)를 통하여서도 감상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적 표현,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등을 고루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DBAE의 출현은 감상이 단순히 표현활동을 돕는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감상 본래의 목적과 특성을 살리는 적극적인 활동의 영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상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미술실의 구비, 학습기자재가 확충되어야 한다.

예술가의 삶이나 예술성, 미술작품과 관련된 시대적 특성, 문화적 양상, 미술사적 양식 등을 감상하기 위한 ‘비디오’, ‘실물화상기’ 등이 갖춰져야 함은 물론, 신속하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활용’, 그리고 선명하고 생생한 작품감상을 위한 ‘슬라이드’ 등을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막연한 감상수업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감상수업으로 이끌 수 있으며 감상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적 체험의 강화로 현장 감상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6·7차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에 1회 이상 미술관, 전시장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듯이 지역사회의 전시회를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미술관의 큐레이터나 작가와의 직접적인 강의와 토론을 유도하여 미적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감상수업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학습(수학여행, 현장학습 등)과 생활 주변의 미술관, 화랑, 박물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감상활동을 유도하면서, 사전 교육과 감상 요령 등을 숙지시키는 물론 체계적인 감상활동을 위한 감상기록장(카드, 워크시트)의 활용도 감상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끈임 없는 자기 연수를 통한 효과적인 미술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다. 종래의 작품 제작 활동 수업, 즉 실기 위주의 수업 비중을 체험활동이나 감상활동 영역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고, 감상수업은 지나친 주입식 이론수업이나 실기수업을 위한 예시작품 감상 위주의 미술수업이 아니라, 미술사나 미학, 미술비평 등 체계적인 감상활동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생들이 미술품을 보고 즐기는 가운데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미술감상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겠다.

넷째, 국가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미술 수업시수를 종전대로 부활시키거나 아니면 학교장의 과감한 선택으로 재량교과활동에 미술교과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술교사로 하여금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나 다른 학교로 수업지원을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간육성에 힘쓰게 됨은 물론 학생들도 미술시간에 쫓기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參考 文獻〉

- 김삼량(199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정희(1998), 「미술교육입문」, 형설출판사.
- 김춘일(1988), 「미술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 (2002),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 김 정 외(1998),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 박휘락(1998), 「한국미술교육사」, 예경.
- 이규선 외(1994),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전상범(1996), 「미술감상」, 형설출판사.
- 고미숙(20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감상학습 모형 연구”, 碩士學位論文, 성신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정연(2001), “미술과 감상교육에 관한 고찰”, 碩士學位論文, 성신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 권순호(2001), “중등 미술교육에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대구카톨  
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미(1997),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  
원.
- 김두삼(1997), “DBAE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 지도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  
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97),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6집.
- 김향숙(1999), “미술감상교육의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비평의 교육적 활용방안”,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1994), 「미술감상과 미술품의 활용」,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3집.
- 류재만(2000), 「미술감상학습에서 교수-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교육학  
회, 미술교육논총 제9집.

- 박경희(2000), “미술비평을 위한 감상 지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기용(1995), “E. B. Feldman의 미술비평 이론에 따른 비평지도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영(2000), “미술사 분석을 통한 감상교육”, 碩士學位論文,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설(2001), “고등학교 미술감상교육의 문화적 접근과 적용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순균(2000), “고교 미술감상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碩士學位論文,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승익(2000), “중등 미술교과 실기 평가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은경(1997), “현행 미술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국현(1999), “DBAE 방법에서 미술사 비교 분석을 통한 중학교 회화학습”, 碩士學位論文,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설(2001), “고등학교 미술감상교육의 문화적 접근과 적용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하(1997), “미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접근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창립(1996), 「미술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6집.
- 정영미(1999),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미술관의 활용실태와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윤(1999), “미술관을 이용한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남주(1998), “미술교육의 감상지도 방안”,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순실(1993), “감상의 단계 및 관점을 적용한 작품감상 지도의 방법적 접근”,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정현(2001), “중등학교에서의 감상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윤재(1999), 「제7차 교육과정 목표분석」,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6집
- 현범구(2000), “중등학교 미술교육에 있어 효율적인 감상지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기태(1996), 「미술사 비교 분석을 통한 감상」,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5집.
- 교육부(1998),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 (1997),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 제주도미술교육연구회(1999), 「미술교육 4호」
- 제주도미술교육연구회(2001), 「미술교육 5호」
- Feldman, E. B.(1988), “The Teachers as Critic”, Research Reading for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 A Journey Beyond Creating Reston NAEA.
- Greer, D.(1984), “DBAE ; Approach ART as a Subject of study”, Studies in Art Education.
- Hagaman, Sally(1992), “Aestheticism Elementary”, Art Education Elementary NAEA.

<abstract>

## Exploring Efficient Teaching Method of Art Appreciation in High Schools

Kim, Maeng - Hee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Dong - Un

All works of arts have their own value. This value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view's appreciative power. In other words, some may deeply appreciate a certain piece of artwork, whereas another might disregard it as art altogether. This is a result of different peoples psychological attitudes and opinions that are expressed through art. Art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and the study of art appreciation is integral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a piece of artwork. Thus, art appreciation education is needed to develop students ability for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art.

Until now, art education has placed more emphasis on developing students' creative and expressive abilities rather than their appreciative ones. This system forces the students who lack the artistic talents to lose their interest in art classes and even become antipathetic toward them. This calls for change in a new curriculum. The seventh curriculum, which has been enforced this year, focuses on art appreciation part, which has been neglected, is divided into two area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art criticism and art history for developing students' critical and esthetic senses as well as artistic intuition.

Upon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current situation in high school in art classes.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to observe how the change in the curriculum emphasized and enhanced art appreciation.

To meet these aims, the researcher was engaged in a variety of literature reviews and chose the questionnaire survey as method for this particular study. The survey was completed by 21 art teachers, and 490 high school students. Of those selected, gender, study environment, and residential area of the subject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est in art as a subject was more popular among boy students and the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s.

Second, the interest in art appreciation class was higher in general high schools and in the urban areas. In terms of the teaching environment, few schools in urban areas have a special classroom for art class. Moreover, even the more up-to-date classrooms have poor facilities and lack appropriate materials for art class.

Thirdly, the overall area wa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art classes for appreciation but the appreciation of model work for practice in skill was mainly treated in those classes. This shows that the classes neglected art history and the more systematic ways should be required in those classes.

Fourthly, on the aspect of understanding of the seventh curriculum, both of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in urban areas considered the insufficient number of art classes the main complaint. The extra classes to solve this problem were mainly taken by Korean, English, math that are counted as more important subjects in schools. The relatively high number in do not know well, the choice selected by the students in rural areas revealed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the indifference about the new curriculum.

Last, enlarging the chances of art appreciation experiences by using nearby museums and exhibitions can contribute for good art appreciation classes. Enough information and pre requisite knowledge from the teacher and the painter or the guides explanation on the site was founded to be very helpfu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actors for effective art appreciation classes as follow:

Firstly, the facilities and material for theory and practice should be arranged for effective art appreciation classes.

Secondly, esthetic experience from visiting real sites such as museums and exhibitions should be stressed in art education in schools.

Thirdly, the art teacher should be trained for the better art appreciation classes through self-study or teacher training courses for art criticism, art history and esthetics.

Fourthly, education authorities should give more consideration on the current art classes: They should try to arrange more art classes in schools. The extra classes should be used for art classes. They should lessen the workloads of the art teachers who are teaching other subjects or in charge of over two schools during the same semester.

<附錄>

설문지

\*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설문(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현장 교육 업무에 바쁘신 것을 알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 현장의 미술과 감상수업 실태를 자료로 하여 감상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지도 방안을 찾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답해 주신 자료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본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 맹 희 드림

※ 설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사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여

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 재직 학교현황

국·공립  사립

시 지역 소재(제주시, 서귀포시)  읍·면 단위 소재

실업계  일반계









27.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 내의 전시장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십니까?  
 가능한 많이 알려준다       가끔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28. 요즘 들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수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술교과에 대한 연수가 개설된다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       가급적 참여해보겠다       관심 없다
29. 미술수업 진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두 가지만)  
 미술시간의 부족       과도한 업무량  
 제한된 공간(미술실이 없음)       학생들의 의욕부진       미술재료 부족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지

\*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설문(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 현장의 미술과 감상수업 실태를 자료로 하여 감상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지도 방안을 찾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업에 바쁘겠지만 여러분이 답하신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하겠으니 부디 뜻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맹 희 드림

※ 설문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여

2. 학교현황

국·공립

사립

실업계

일반계

3.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읍·면 단위 소재



10. 미술시간에 감상수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 표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 미술에 대한 지식과 작품을 보는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 미적 정서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사회인이 되었을 때 폭 넓은 교양인이 되기 위하여
11. 여러분은 미술 전시회를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다녀오니까?
- 스스로 세 번 이상
  - 어쩔 수 없이 미술과제 때문에 한 번 이상
  - 스스로 한 번 이상
  - 흥미가 없어서 전혀 다녀오지 않았다
12. 여러분이 미술 전시장에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미리 설명을 들었을 때, 본인의 감상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요?
- 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 없다
13.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미술전시장을 찾았을 때, 작가(화가)나 전시장 안내인(큐레이터)으로부터 안내를 받거나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14. 미술감상수업을 위하여 선생님께서 감상기록장(카드)을 나누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 항상 받는다
  - 가끔 받는다
  - 받은 적이 없다
15. 여러분은 전시회를 보고 나서 감상문을 써 보았습니까?
- 작품 감상 후 항상 쓰고 있다
  - 어쩔 수 없이 과제 때문에 쓴다
  - 작품은 감상하지만 귀찮아서 써보지 않았다
  - 전시회를 볼 기회가 없어서 못 썼다
16. 미술 감상수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는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 그저 그렇다
  - 불만족스럽다
17.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감상수업을 위하여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수학여행 등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된다
  - 어느 정도 도움된다
  - 전혀 도움 안 된다

18. 여러분은 학교수업 외에 미술 감상활동을 위하여 어떤 곳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느 곳인지요?

- 박물관이나 미술관(문예회관, 학생문화원...)
- 도서관
- 서점                       집(신문이나 잡지)                       컴퓨터

19. 여러분의 학교에서 미술제 행사를 했을 때, 감상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